

좌회선동맥에서 기시하는 우관상동맥 2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김정수*, 송성국, 이태근, 최재훈, 박용현, 정준훈, 김준홍, 전국진, 홍택중, 신영우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발견되는 관상동맥기형은 협심증, 급성 심근 경색, 돌연 심장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0.6~1.2%의 빈도로 발견되고 있으며 협심증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동반된 관상동맥기형은 관상 동맥 조영술 중 도관의 삽입과 중재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상동맥기형의 유형, 발생 빈도와 진단, 임상적 의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조영 검사 중에 좌회선동맥에서 기시하는 우관상동맥 기형 2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1 54세 여자가 5일전 새벽에 발생하는 심한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가족력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인지된 위험 인자도 없었다. 심전도 검사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으며 의미있는 ST 및 T파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심근효소수치는 정상범위였으며 심장초음파검사상 벽운동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동시에 검사한 갑상선기능검사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 소견이 나타났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뚜렷한 협착은 없었으나 우관상동맥에서 우관상동맥의 입구가 보이지 않았고, 좌회선동맥으로부터 좌심실배측 분지를 통해 우관상동맥이 조영되는 우관상동맥 기형이 관찰되었다. 관동맥 연축유발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변이형 협심증으로 추정진단하고 칼슘길항제와 nitrate제로 치료후 증상이 호전되어 경과관찰 중이다. 증례2 5년 전부터 고혈압과 안정형 협심증으로 치료중이던 72세 남자가 운동시 점점 심해지는 전형적인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사회력상 2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고 부친이 뇌혈관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었다. 심전도검사상 동서맥 외 특이 소견 없었으나, 답차검사서 1.0 메트에서 2개 이상의 유도에 ST절의 하강이 나타나는 양성 소견을 보였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방하행동맥 중간부위의 완전 폐쇄 및 좌회선 동맥이 협착(50%)되어 있는 2혈관 질환이 관찰되었고 이에 동반하여 우관상동맥의 입구가 없이 좌회선 동맥으로부터 좌심실배측 분지를 통해 우관상 동맥이 조영되는 우관상동맥 기형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시술을 거부하여 약물 치료 후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관상동맥 조영술상 확인된 단일 혈관 질환의 병변양상과 CRP와의 관련성

부산대학교 내과학 교실

이태근*, 최재훈, 김정수, 송성국, 박용현, 정준훈, 김준홍, 전국진, 홍택중, 신영우

배경: 염증반응이 동맥경화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고, 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관상동맥 혈전증을 가속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의 염증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CRP는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예후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재협착 발생의 예측인자 및 예후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CRP와 관상동맥 질환의 병변양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고 다혈관 질환일 경우 병변 양상의 표현에 제한점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단일 혈관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CRP 값을 측정하여 병변양상과 시술 전 CRP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질환별로 분류하여 서로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어 본원에서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단일 혈관 질환으로 진단된 1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 전날 오전 CRP를 측정하였고 병변의 특성 등에 따라 ACC/AHA 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type A, B, C 병변으로 분류하였으며 질환별로 안정형, 불안정형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전체환자중 type A,B,C는 각각 25,76,32명이었고 질환별로 안정형 협심증이 59명, 불안정형 협심증이 36명, 급성 심근경색증이 38명이었다. 병변양상과 CRP와의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 관찰되지 않았고 또한 질환별로 살펴보았을때 불안정형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에서 안정형 협심증보다 의미있게 CRP의 농도는 상승되어 있었으나 병변양상과의 관련성은 통계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type A와 나머지 type과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으나 type B,C 에서 type A 보다 CRP의 농도가 상승되어 있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결론: 관동맥 조영술상 단일혈관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병변양상과 CRP와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